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인과적 이유-민감성과 부재 인과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김 모 현

# 인과적 이유-민감성과 부재 인과

지도 교수 한 성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김 모 현

김모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초 록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Frankfurt(1969))는 행위자가 실제 행위와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사례의 귀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아닌 실제 이뤄진 행위에 자유의지가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유-반응성 이론은 자유로운 행위의 원천을 행위자가 이유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유-반응성 이론들을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에 대입하면 문제가 생긴다.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이유에 따라 행위할 수 없는 행위자가 실제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토리오가 세운 '실제-인과적 연쇄'(ACS) 이론(Sartorio(2016))에 따르면,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인과적 연쇄에서 자유가 비롯된다. 이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인과적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한다. 기존 이유-반응성 이론의 대안으로 사토리오는 '인과적 이유-민감성'(CRS) 이론을 제시한다. 사토리오는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 또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인과적 이유-민감성에 따르는 행위자는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없더라도 자유롭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토리오는 자신의 이론에서 부재 인과를 그 내용의 중요한 토대로 삼고 있다. 부재 인과는 사건의 부재가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토리오의 이론은 부재 인과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필자가 보기에, 부재 인과는 반사실적 설명을 전제해야 한다. 부재 인과를 설명하려면, 반사실적 인과를 받아들이거나 부재 인과를 유사-인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인과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일어났을 인과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부재가 원인이나 결과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Dowe(2001)).

본고에서 필자는 사토리오의 이론이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토리오는 원인이 결과에 차이를 만든다는 차이-생성(difference-maker) 인과를 제안하기도 하고, 부재 인과를 유사-인과로 받아들이는 가능성 또한 열어둔다. 하지만 어떤 시도를 해도 결국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였을 때, 사토리오의 이론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다르게 선택할 여지가 없는

행위자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이지 못함을 논증한다. 부재 인과를 밑바탕으로 한 사토리오의 이론은 결국 자유의지와 인과적 결정론의 양립을 보이는 데 실패한다.

**주요어 :** 자유의지, 결정론, 양립가능론, 인과적 이유-민감성, 부재 인과, 반사실적 설명
**학 번 :** 2020-28895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 6
제 1 절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양립가능론 ..... 7
제 2 절 ACS: 실제 인과적 연쇄 ..... 14
제 3 절 CRS: 인과적 이유-민감성 ..... 19
제 4 절 소결 ..... 22

제 3 장 부재 인과 ..... 24
제 1 절 제외 문제와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 ..... 27
제 2 절 의존 인과에서 부재 인과 ..... 29
제 3 절 생산 인과에서 부재 인과 ..... 33
제 4 절 소결 ..... 37

제 4 장 반사실적 설명과 프랑크푸르트 사례 ..... 39
제 1 절 차이-생성 인과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 40
제 2 절 ACS · CRS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 43
제 3 절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 46
제 4 절 소결 ..... 49

제 5 장 결론 ..... 51

참고문헌 ..... 54

Abstract ..... 57

# 제 1 장 서 론

자유의지가 있다면, 결정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론이 참이라면 모든 현재의 행위는 과거로부터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얼핏 이 둘은 같이 성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위의 자유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직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에 대한 반례가 존재하고, 자유를 달리 행할 능력이 아닌 실제로 있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에 자유의지와 인과적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본고는 그러한 입장의 한 견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C. 사토리오(Sartorio(2016))가 제시한, 자유의 근거가 실제 일어나는 일련의 인과적 연쇄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

자유와 인과적 결정론이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의 배경 중 하나는 자유가 달리 행할 능력, 즉 행위의 대안 가능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가 고안한 사례(Frankfurt(1969))는 자유의지가 대안 가능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귀결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대안 가능성이 자유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면, 자유는 가능 상황에서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거나 일어나는 것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귀결을 안 받아들이고 양립가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1]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귀결을 받아들이면서 양립가능론을 수용하는 경우 자유의 근거에 대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자신이 제시한 조화 이론으로, 1차 욕구와 2차 욕구가 맞물렸을 때 자유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접근이다.[2] 두 번째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실제-연쇄 관점의 이론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연쇄가 자유의 근거가 된다는 접근이다.

실제-연쇄 관점은 자유를 수반하는 사건 연쇄와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사건 연쇄를 구분하기 위해 이유-반응성 이론을 제시한다. 이유-반응성이란, 행위자가 반사실적 상황에서 실제 일어난 행위와 다른

[1] 대안가능성에 의한 자유를 옹호하는 양립가능론자는 비벨린 등의 신성향주의자가 있다(Vihvelin. K. (2004)).

[2] Frankfurt, H.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1).

행위를 할 이유가 있었더라면 다른 행위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행위자는 자유롭다는 이론이다. 문제는, 이유-반응성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 적용했을 때 자유가 대안 가능성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위자가 자유롭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셔와 라비자는 이유-반응성이 행위자가 아닌 메커니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멕케나는 행위자가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때 그 자신의 이유에 따른 선택이라면 이유-반응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3] 하지만 각자 문제를 안고 있다. 피셔와 라비자의 문제는, 여전히 반사실성을 이용해 이유-반응성을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 메커니즘이 같고 반사실적 상황은 다른 경우에 자유가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가 생긴다.[4] 멕케나의 전략 또한 충분히 강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사토리오는 지적하고 있다.[5]

이유-반응성 이론과 실제-연쇄 관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토리오는 실제-인과적 연쇄(ACS: Actual Causal Sequence) 관점과 인과적 이유-민감성(CRS: Causal Reasons-Sensitivity) 이론을 제안한다.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은 자유가 일련의 '인과적으로' 연쇄되는 사건들에 근거한다고 제안한다. 이유-민감성 이론은 이유-반응성 이론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유-반응성처럼 반사실적 상황에서 하지 않을 이유에 따라 행위를 그만둘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대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행위할 이유와 함께 고려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사토리오의 이론은 한 가지 중대한 문제에 부딪힌다. 사토리오의 이론은 부재 인과가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과 이론 중에는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도 많다. 사토리오는 따라서 부재 인과 대신 유사-인과를 받아들여도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재 인과나 유사-인과 모두 반사실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부재 인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원인에 결과가 의존한다고 보는 의존 인과 진영의 반사실적 인과 이론, 규칙성 인과 이론, 확률 인과 이론이 있다. 결정론과 충돌하는 확률 인과 이론을 논의에서 제외하면,

---

[3] Fisher. J. M, (1987), 'Responsiveness and Moral Responsibility', in his *My Ways: Essays on Mor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McKenna. M, (1997), 'Alternative Possibilities and the Failure of the Counterexample Strateg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8 (3): 71-85.

[4]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 Sartorio, C. (2016), 위와 같음, 119쪽.

부재 인과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사실적 인과 이론뿐이다. 반사실적 인과 이론은 반사실적 설명을 통해 인과를 설명하므로, 부재 인과 또한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은 원인과 결과가 물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생산 인과 진영이며, 과정 인과 이론과 성향 인과 이론이 있다. 이들은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대안적 설명으로 유사-인과를 제시한다. 유사-인과란, 반사실적 상황에서 일어났을 인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재가 인과를 맺는 것처럼, 즉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유사-인과 또한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부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한다.

사토리오의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은 할 이유의 존재에 더불어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에 따라 행위할 때, 행위자의 행위가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는 오로지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에 따른 행위의 자유도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행위의 자유가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반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토리오가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가령, 멕케나가 제시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이유에 따른' 같은 조건을 추가하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가 자유롭다는 귀결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토리오는 그런 임기응변식의 추가 조건은 너무 약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사토리오는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에 의존하는 순간 충분히 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토리오의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이 본래 의도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론의 구성은 3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장에서 자유가 행위자의 다르게 행위할 능력이 아닌 행위의 원천에 근거함을 옹호하는 프랑크푸르트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그 뒤 실제-연쇄 관점의 이유-반응성 이론들을 소개하고,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연쇄 관점의 한 가지 입장인 사토리오의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과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사토리오가 이유의 부재를 원인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3장에서는 부재 인과가 전반적인 인과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토리오는 이유-반응성 대신 인과적 이유-민감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하고 있다.[6] 반사실적 인과 이론에서는 물론 부재 인과가 반사실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 이론을 거부한다. 한편, 반사실성에 의해 인과를 설명하지 않는 이론에서 부재 인과는 일반적으로 유사-인과로 받아들여진다. 유사-인과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부재가 직접 인과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사실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났을 인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재가 인과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4장에서 본고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의 첫 번째 주장은 사토리오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토리오의 인과 이론 내에서 부재 인과가 반사실적 설명 없이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다. 만약 사토리오의 인과 이론이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종류의 인과 이론을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인과 이론을 도입했을 때 부재 인과가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부재 인과는 결국 반사실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부재 인과가 반사실적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면 ACS와 CRS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선택할 수 없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것이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ACS와 CRS를 토대로 프랑크푸르트 사례를 해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주장은 부재 인과를 개념적으로 포함한다. 두 주장이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면, 두 주장은 프랑크푸르트 사례를 해명하지 못할 것이다.

행위 사건의 인과적 연쇄에 자유의지의 근거를 부여하는 사토리오의 제안은 자유와 인과를 한데 묶어서 깔끔하게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토리오는 부재 인과라는 형이상학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소를 전제하고 있다. 필자는 부재 인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토리오의 이론이

[6] 사토리오는 자신의 이론의 토대가 되는 인과의 개념에 대해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한다. 그녀는 부재 인과와 인과의 외재성(extrinsicness), 인과의 비이행성(intransitivity)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그 중 부재 인과가 특히 사토리오의 이론 전반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논쟁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반사실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 제 2 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했을 때 그와 다른 행위를 선택할 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자유가 실제와 다른 행위를 선택할 능력에 있다고 보는 직관은, 양립가능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가 1969년에 이 직관이 틀렸다는 논증을 전개한다.[7] 이 논증의 함의를 반영한 사례를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라고 부른다.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의 함의가 옳다고 받아들이면, 자유가 무엇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때 자유는 실제 있는 무언가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가 실제로 있는 어떤 원천에서 나오며 결정론과 양립한다는 입장이 원천 양립가능론이다. 원천 양립가능론의 한 갈래로, 실제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연쇄가 바로 자유를 산출한다는 입장인 실제-연쇄 관점이 있다.

실제-연쇄 관점의 과제는 실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연쇄 중 어떤 것이 자유를 산출하고 어떤 것은 자유를 산출하지 않는지 구분하는 데에 있다. 실제-연쇄 관점에서 자유를 산출하는 사건 연쇄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유-반응성 이론이다(Fischer and Ravizza(1998); McKenna(1997); Sartorio(2016)). 이유-반응성 이론은 사건 연쇄가 행위자의 이유에 반응적이라면 행위자가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유-반응성 이론은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반사실적 상황을 끌어들이게 되고,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 이론이 나왔지만(Fischer(1987); McKenna(1997)), 사토리오는 이들의 이론이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Sartorio(2016)). 사토리오는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과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토리오의 이론은 인과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부재 인과를 이론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본 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가 무엇이고 어떤 귀결을 낳는지 먼저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의 귀결을

[7] Frankfurt, H. (1969), 'Alternate Possibilities and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66: 829-39.

받아들이는 입장인 원천 양립가능론자들의 이론 중, 실제-연쇄 관점의 이론들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이유-반응성 이론의 한 갈래인 사토리오의 ACS와 CRS이론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 제 1 절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양립가능론

철수가 창문에 돌을 던졌다고 하자. 이때 철수는 돌을 던지는 대신 그 시간에 꽃을 구경하거나 이웃집에 인사를 건넬 수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때 철수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창문에 돌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철수가 돌을 던지는 대신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수의 행위가 자유롭다고 보는 입장이 대안-가능성 관점이다. 이 관점은 행위자가 다르게 행위할 수 있었다는 반사실적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면, 자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대안-가능성 관점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프랑크푸르트가 1969년에 제시한 반박 논증을 맞닥뜨린다. 다음은 사토리오가 변형해서 제시한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이며, 기본적인 함의가 원래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와 달라지는 바가 없으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사토리오의 변형 사례를 사용한다.

> 신경과학자가 비밀스럽게 C라는 특정 선택을 할지를 숙고하고 있는 프랭크라는 행위자의 뇌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경과학자는 프랭크의 뇌 활동을 봄으로써 그의 선택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고, 프랭크가 C를 선택하도록 뇌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프랭크가 그 스스로 C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한다면 [C를 하도록 뇌를 조작해서] 개입할 계획이다. (프랭크가 그 스스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신경과학자의 개입 없이, 프랭크는 그 스스로의 이유에 동기부여되어, C를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Sartorio(2016), 13쪽.)

위 사례에서 프랭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C를 선택하지만, 그가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다. 프랭크가 C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신경과학자가 프랭크의 뇌를 조작해서 C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랭크는 어떤 선택을 해도 C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는 자유 의지가 대안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귀결을 낳는다.[8]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대안 가능성이 아닌 다른 것, 바로 행위의 원천에 자유의지가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원천 양립가능론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다시 나뉜다. 첫 번째는 조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1차적 욕구와 2차적 의욕이 맞물려 조화를 이뤘을 때 자유의지가 발현된다고 본다(Frankfurt(1971)). [9] 두 번째 입장에서는 행위의 원천이 행위를 근거하는 사실의 연속 또는 일련의 사건과 유관한 사실들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의도로부터 행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자유가 산출된다. 이러한 입장의 관점을 실제-연쇄 관점이라고 부른다(Fisher(1987); McKenna(1997); Sartorio(2016). [10] 본고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노선인 조화 입장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연쇄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11]

그런데 실제-연쇄 관점을 수용하려면, 행위에서 비롯된 연속된 사실 또는 사건들이 자유를 어떻게 낳는지, 또 자유로운 행위의 사건 연쇄와 자유롭지 않은 행위의 사건 연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할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이유-반응성 이론이다. 피셔는 1987년에 실제-연쇄 관점의 설명을 위해 이유-반응성의 개념을 도입했다.[12]

이유-반응성(reasons-responsiveness) 이론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행위자의 이유에 반응적이라면 자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유-반응성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반사실적 상황에서 행위를 그만둘 이유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행동하기에 적절한 이유를 인지하고 이유에 반응하며 행위를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자유롭다.

---

[8]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귀결에 불복하며 자유가 대안가능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Naylor(1984); Vihvelin(2004)). 그러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9] Frankfurt, H.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 1: 5-20.

[10] Fisher. J. M, (1987), 'Responsiveness and Moral Responsibility', in his *My Ways: Essays on Mor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McKenna. M, (1997), 'Alternative Possibilities and the Failure of the Counterexample Strateg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8 (3): 71-85; Sartorio,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 맞물림 견해에 대해서는 Frankfurt, H.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 1: 5-20을 참조.

[12] Fisher. J. M, (1987), 'Responsiveness and Moral Responsibility', in his *My Ways: Essays on Mor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본고에서는 앞으로 이유-반응성 대신 사토리오가 사용하는 용어인 이유-민감성(reasons-sensitivity)을 쓰도록 하겠다. 본고는 사토리오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다 두 용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논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13]

이유-민감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이유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면 그 행위는 자유롭다. 예를 들어, 마약중독자 A와 일반인 B가 한날 한시에 같은 마약을 섭취하고 있다. 둘다 마약을 섭취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 있고, 이 이유를 인지할 수 있다. 일반인인 B는 이 이유를 인지했을 때 마약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는 이유-민감하게, 즉 자유롭게 마약 섭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 A는 이유를 인지하더라도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섭취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 섭취 행위에 이유-민감하지 않으며, 이유-민감하지 않으니 자유롭지도 않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에 이유-민감성 설명을 도입하면, 사례 속 행위자가 이유-민감하지 않고 따라서 자유롭지도 않다는 불합리한 귀결이 나온다. 사토리오가 변형한 프랑크푸르트 사례로 돌아가서, 프랭크가 하려는 C 행위가 푸르트라는 어떤 사람의 심장을 총으로 쏘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푸르트를 쏘지 않을 이유가 프랭크에게 주어지는 반사실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 R: 푸르트는 5명의 아이의 아버지이고, 푸르트가 있을 때에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살아남는다. (Sartorio(2016), 114쪽.)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신경과학자가 프랭크를 감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개입할 것임을 상기하자. 반사실적 상황에서 프랭크는 이유 R을 인지하고 푸르트를 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더라도 프랭크는 신경과학자의 개입에 의해 푸르트에게 총을 쏠 것이다. 위의 이유-민감성 정식화를 상기해보자. 푸르트를 쏘지 않을 이유 R이 있다. 프랭크가 그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쏘는 상황만이

[13] 이유-반응성 개념은 피셔와 라비자의 이론(Fischer and Ravizza, (1998))에서 세 단계로 나뉜다. 이유-수용(reasons-receptivity), 이유-반응(reasons-reactivity), 행위 실현이다. 이유-수용은 이유를 인지하고, 이유-반응은 인지한 이유에 알맞은 행위를 선택하며, 그 선택이 행위로 실현된다. 그런데 반응성(responsiveness)과 반응(reactivity)은 한국어로 구분하기 어렵고, 혼동의 소지가 크다.

있다면, 그는 이유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유-민감하지 않다. 하지만 이유 R은 반사실적 상황에만 있다. 실제 상황에서 프랭크는 R을 모르고 있거나 R이 성립하지 않으며, 프랭크는 자신의 의지로 푸르트를 쏘았다. 이유-민감하지 않은 프랭크는 실제로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유-민감성은 프랑크프루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는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민감성 이론이다. 피셔는 이유를 받아들이는 단계인 이유-수용과 이유에 행위를 통해 반응하는 이유-반응을 구분한다.[14] 이유-수용은 행위자가 이유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이유-반응은 이유-수용이 일어난 뒤, 이유에 따라 행위를 하려고 선택하려는 단계이다. 이유-반응이 성공적이라면, 이 뒤에 선택을 행위로 실행하는 단계가 나온다. 이 세 단계를 이은 일련의 과정이 이유-민감성 메커니즘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일부이며 실제 행위를 산출한 일련의 메커니즘이 이유에 민감한지 여부가 자유의 근거가 된다. 다음 정식화는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민감성 개념을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 (MRS) 행위자 S가 행위 C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할 충분한 이유 $R_1$, $R_2$, $R_3$, …$R_n$을 인지하고 있고, 이유를 인지하는 성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유-수용하게 만들며, 같은 종류의 메커니즘 M이 작동하는 가능세계 $W_1$, $W_2$, $W_3$, …$W_n$이 충분히 많을 때, 그러한 가능세계 중 하나인 $W_i$(i=1, 2, …n)에서 S가 C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할 충분한 이유를 인지하고, 그 이유에 따라 행위를 선택하고, 다른 행위를 할 때, S가 C 행위를 하는 종류의 메커니즘 M은 이유-민감하다. (Fisher and Ravizza(1998), 63-76쪽.)

(MSR)에 따르면, 실제 상황에서 행위자는 이유-수용과 이유-반응 후 행위까지 옮기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자유롭다. 하지만 행위자가 만약 푸르트를 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R을 알고 R에 따라 행위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행위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된다. R을 알고, R에 따라 행위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을

[14] Fischer, J. M. (2006), 'Responsiveness and Moral Responsibility', in his *My Ways: Essays on Mor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67쪽.

실행하는 과정이 모두 성립해야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행위자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신경과학자가 개입해서 마지막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가 실패한다. 결정을 실행하지 못했으므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즉, 신경과학자가 개입한 반사실적 상황은 메커니즘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자가 개입한 반사실적 상황에 실제 상황과 같은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프랭크가 푸르트를 쏜 것과 같은 종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이유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메커니즘은 이유-민감하게 잘 작동했다. 따라서 피셔와 라비자의 설명에서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행위자는 자유롭다.

그러나 사토리오는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민감성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한다.[15] 다른 조건은 같지만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프랑크푸르트 사례1을 상상해보자. 사례1의 프랭크는 프랭크1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사례에서 프랭크1을 감시하는 신경과학자는 프랭크1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다.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1은 명백히 자유에 따라 푸르트를 쏘았다. 그러면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에 더해 프랭크가 복수심에 불타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도 푸르트를 쏘기로 결정한다는 조건을 추가한 사례2를 생각해보자. 물론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2도 자유롭게 푸르트를 쏘았다.

두 상황의 차이는 푸르트를 쏘지 않을 이유 R이 있는 반사실적 상황일 때 나타난다. 프랭크1은 이유 R에 반응해서 행위를 결정하므로 이유 R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반면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2는 이유 R에 반응하지 않고 행위를 결정하므로 R이 생겨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프랭크1은 프랭크2와 달리 이유 R에 반응해서 푸르트를 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는 복수심이 너무 강해서 R을 알아도 푸르트를 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2는 R에 대해 이유-민감하지 않다. 프랭크2는 쏘지 않을 이유들에 동기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토리오는 프랭크2가 이유-민감하지 않으므로 마약중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R이 없는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15]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119-121쪽.

일어난 메커니즘은 프랭크1과 프랭크2가 같다고 지적한다.[16][17] 반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프랭크1과 프랭크2는 둘다 자유롭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멕케나는 행위자 중심의 이유-민감성 이론을 고수한다. 멕케나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도 이유-민감함을 보이려고 한다. 먼저, 행위자가 충분히 다른 행위를 할 이유가 있으며 외압에 의해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18] 따라서 민감한 것과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은 별개이고, 행위자는 여전히 이유-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멕케나의 정식화를 보자.

> (ARS) 행위자 S가 행위 C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할 충분한 이유 $R_1$, $R_2$, $R_3$, …$R_z$를 인지하고 있고, 이 중 이유 $R_1$, $R_2$, $R_3$, …$R_n$(이때, n<z)에 대해 반응적(reactive)이며, **반사실적 상황에서 자신의 이유에 동기부여되어 C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때**, S는 이유 $R_1$, $R_2$, $R_3$, …$R_n$에 대해 이유-민감하다. (McKenna(2013), 170-176쪽.)

프랭크의 사례에서 프랭크는 쏘지 않을만한 잠재적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프랭크가 이유 $R_1$부터 $R_z$까지에 대해 이유-수용적이고, 이유 $R_1$부터 $R_n$까지에 대해 반응적이라고 하자. 이때 n은 z보다 작은 임의의 수이며, 이에 따라 프랭크의 반응성 정도가 수용성 정도보다 범위가 작을 것이므로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일 것이다. 프랭크가 푸르트에게 돌봐야 할 아이 5명이 있다는 이유 R을 알게 된다면, R은 푸르트를 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R_1$부터 $R_n$까지의 이유들이라고 하자. 반면 $R_{n+1}$부터 $R_z$까지는 푸르트를 쏘지 않을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범위의 이유만 있다면 프랭크는 망설일 수는 있어도 결국 푸르트를 쏠 것이다. $R_{n+1}$부터 $R_z$의

---

[16]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20쪽.

[17] 멕케나도 동일해 보이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위자 이유-민감성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cKenna(2013)).

[18] McKenna, (2013), 'Reasons-Responsiveness, Agents, and Mechanisms', in D. Shoemaker (ed.), *Oxford Studies in Agency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71쪽.

이유만 알고 있다면, 푸르트를 쏠 이유에 민감한 반면 $R_{n+1}$부터 $R_z$까지 이유에 민감하지는 않다. 반면 $R_1$부터 $R_n$까지의 이유가 있어서 쏘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을 때는 $R_1$부터 $R_n$까지의 이유에 민감한 반면 복수심에 이유-민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프랭크가 푸르트를 쏘지 않으려고 결정하면 푸르트를 쏘도록 프랭크를 조종할 예정인 신경과학자를 여기 끼워보자. 후자 범위의 이유만 있으면 프랭크는 푸르트를 쏠 것이고, 전자 범위의 이유가 있다면 신경과학자가 개입해서 프랭크가 총을 쏘도록 할 것이다.

멕케나가 짚는 요지는 프랭크가 외압에 의해 총을 쏘았다고 해서 프랭크의 행위가 이유-민감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의 행위는 어떤 맥락에 대해서든 이유-민감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 때 자신의 이유에 따라 행위할 것이 아니라 외압에 의해 행위하게 될 것이므로,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더라도 총을 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_1$부터 $R_n$까지의 이유에 대해 어쨌든 프랭크는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프랑크푸르트식 사례 하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멕케나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이유에 따라 행위하는지 여부로 이유-민감성을 설명할 수 있다. 외부 요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위자가 실제로 어떤 이유들을 인지했을 때 이유에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사토리오는 멕케나의 방식을 결과-약화 전략이라고 명명한다.[19] '자신의 이유로 행위하지 않는'이라는 결과 조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자신의 이유로 행위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행위자가 이유-민감하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설명을 하는 순간, 이 이론 또한 행위자의 자유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강건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20]

사토리오가 보기에, 멕케나의 이유-민감성은 "오로지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지** 고려할 뿐,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Sartorio(2016), 119쪽.) 즉, 행위자가 자신의 이유에 따라 실제로는 한 행위를 하지 않는 반사실적 상황만 고려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힘을 특정 시점에 발휘하여 특정 행위 C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심리적 고통을 느껴

[19]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6쪽.
[20] Sartorio, C. (2016), 위와 같음, 118쪽.

결과적으로 C 행위에 실패한다면, 그는 자신의 이유로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행위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그러한 점이 그의 행위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21]

필자가 보기에, 사토리오는 기존 이론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반사실적 설명을 통해 실제 상황의 행위 연쇄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반응성 이론에서 복수심이 강해서 이유-민감하지 않은 프랭크도 실제 메커니즘은 자유로운 프랭크와 같다는 사토리오의 지적은 실제 상황에 주목하기에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멕케나의 행위자 이유-반응성에 대해서도 결국 반사실성에 의존한 설명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설명을 제거하고 실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이유-민감성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인과적 이유-민감성이다. 사토리오는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통해 기존 이유-민감성 이론들이 이유-민감성을 반사실적으로 설명해서 만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사토리오가 갖고 있는 실제-연쇄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 우선 검토할 것이다. 사토리오는 자유가 인과에 근거지어진다고 보이려 시도한다. 실제 인과에 근거지어진다면 반사실적 상황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사토리오의 주장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 제 2 절 ACS: 실제 인과적 연쇄

실제-인과적 연쇄 견해에서 사토리오는 자유의 근거를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실 전반이 아닌, 인과적 연쇄로 제한하고 있다. 사토리오는 실제-인과적 연쇄만이 오로지 자유를 근거짓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인과적 연쇄가 자유를 근거짓는다는 조건과 오직 실제-인과적 연쇄만이 자유를 근거짓는다는 조건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사토리오의 주장이 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P) 실제-인과적 연쇄가 행위자의 자유를 근거짓는다.

[21] Sartorio, C. (2016), 위와 같음, 119쪽.

그러나 이 주장은 약한 주장이며, 실제-연쇄 관점과는 다른 방식의 자유에 대한 관점, 이를테면 대안-가능성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다. 대안-가능성 관점에서는 실제 인과적 연쇄와 대안적 행위 가능성 둘다 자유를 근거짓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정 주장을 추가해보자.

(N) 실제-인과적 연쇄 외의 다른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근거짓지 않는다.

(N)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자유를 근거짓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P)없이 (N)만 있다면, 자유가 그 자체로서 근원적이라는 강한 주장까지 포함하거나, 반대로 자유라는 것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연쇄가 자유를 근거짓는다고 알맞은 방식으로 주장하려면, 긍정 주장과 부정 주장이 동시에 이야기되어야 한다. 두 주장이 합쳐졌을 때 실제-인과적 연쇄만이 오로지 자유를 근거짓는다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다.

긍정 주장과 부정 주장을 합친 새로운 제안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가 자유롭게 행위 C를 수행했다는 직관에 어긋나지 않는다. 프랭크가 자유롭게 행위 C를 수행했다는 직관을 수용하려면, 어떤 반사실적 가능성으로 자유를 설명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은, 사토리오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위를 낳는 실제-인과적 연쇄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선 자유가 인과에 의해 근거지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해보도록 하자.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유의지가 있다면 도덕적 책임도 있다. 도덕적 책임이 있으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도덕적 책임은 자유의지에 수반한다.

자유가 인과에 근거한다면 자유로운 행위에 따른 도덕적 책임도 인과에 근거지어진다. 물론 자유가 인과에 의해 근거지어져도 책임은 근거짓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의지에 도덕적 책임이 수반하는 것이라면, 자유를 근거지으면서 책임을 근거짓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토리오는 책임 또한 인과에 의해 근거지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재의 인과적 역할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사토리오는 책임이 인과에 근거하지 않는 듯한 다음과 같은 예상 반례를 제시한다.

> 끼익 소리가 나는 버튼: 나는 끼익 소리를 사랑한다. 나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끼익 소리가 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소리를 듣기 위해 버튼을 누른다. (Sartorio(2016), 36쪽.)

이 사례에 다음 두 가지 변수를 추가해보자. (1) 버튼을 누르면 먼 마을이 홍수에 쓸려 내려갈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끼익 소리를 듣고 싶어서 버튼을 누른다. (2) 앞서 경우와 다른 상황은 모두 같지만, 내가 버튼을 누르면 먼 마을이 홍수에 쓸려 내려갈 것을 모르고 있다. 직관적으로, (1)은 마을이 쓸려 내려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2)는 책임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행위의 실제 인과적 연쇄는 (1)과 (2) 두 상황에서 같아 보인다. 이 직관이 맞으면, 책임은 인과적 연쇄에 근거지어지지 않는다. 두 행위자가 일련의 인과적 연쇄가 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도덕적 책임이 다르다면, 어떻게 인과적 연쇄에 책임이 근거하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앞서 자유와 책임은 같은 것에 근거한다고 보기로 했다. 책임이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자유 또한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토리오는 겉보기와 달리 두 경우의 실제-인과적 연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차이는 '부재'의 인과적 역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부재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잇다는 것이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내 의도의 부재, 즉 '마을이 쓸려 내려갈 것을 알면서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버튼을 누른 것'의 누락 원인(cause by omission)이 될 수 있다.

그러면 (1)에서 버튼을 누르는 행위의 의도인 원인은 두 가지다. '끼익 소리를 듣고자 함'과 '마을이 쓸려 내려갈 것을 알지만 고려하지 않음'이다. 반면, (2)의 행위의 부재 원인 중에는 '마을이 쓸려 내려갈 것을 알지만 고려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1)과 (2)의 인과적 연쇄가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인과적 연쇄에 따라 (1)과 (2)의 책임이 달라진다. 버튼을 누르면 마을이 쓸려 내려갈 것을 알면서 고려하지 않은 의도 누락에 따라, (1)만이 마을이 쓸려 내려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처럼 누락에 의한 원인을 받아들인다면, 책임이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지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가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지어진다는 것 또한 확실히 할 수 있다.

자유가 오로지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지어진다면, 그로부터 함축되는 명제가 있다. 다음은 긍정 주장 (P)와 부정 주장 (N)을 합쳐서 따라 나오는 수반 명제다.

(수반) 실제 인과적 역사에 자유의지가 수반한다.

수반 주장이 따라 나오는 까닭은, 부정 주장이 어떤 두 행위의 실제-인과적 연쇄가 같다면 행위의 자유의 유무도 같음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주장에 따르면, 실제-인과적 연쇄가 아닌 다른 것은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인과적 연쇄에 행위자의 자유가 따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자유는 실제-인과적 연쇄 외의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인과적 연쇄가 같다면 자유에 관해서 어떤 차이도 없게 된다.

그런데 수반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W) x에 관한 행위자의 자유는 x라는 결과를 낳는 모든 인과적 연쇄에 수반한다.
> (S) x에 관한 행위자의 자유는 행위자의 자유를 근거짓는 x라는 결과를 낳는 인과적 연쇄의 요소들에 수반한다. (Sartorio(2016), 29쪽)

(W)는 넓은 주장, (S)는 좁은 주장이다. (W)는 x에 관한 자유를 모든 인과적 연쇄의 요소와 관련짓는 반면, (S)는 행위자의 자유를 근거짓는 인과적 연쇄의 요소들에 한정해서 x에 관한 자유가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S)가 수반 주장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x의 모든 원인이 x와 관련된 행위자의 자유와 유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2] 예를 들어, 내가 끼익대는 버튼을 누른 것은 끼익대는 버튼을 거기에 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끼익대는 버튼을 내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은 것도 내가 끼익대는 버튼을 누른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인이라고 해도 그 사건은 내가 버튼을 누르는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W)에 따르면, 누군가 내 눈에 띄는 곳에 버튼을 놓은 것에도 내가

[22] Sartorio,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9쪽.

버튼을 누르는 자유가 수반한다. (W)와 달리 (S)는 행위자의 자유를 근거짓는 인과적 연쇄일 때만 자유가 인과적 연쇄와 유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과적 연쇄에 자유가 수반함을 더 정확하게 포착한다.

결론적으로, 실제-인과적 연쇄 이론은 다음과 같이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다른 조건은 전부 같되, 신경과학자가 감시만 하고 프랭크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사례를 상상해보자. 그 다음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사례와 프랑크푸르트 사례 각각의 인과적 연쇄 및 인과적 연쇄와 연관된 사실들에 대해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전제 1)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사례의 프랭크의 선택은 자유로웠을 것이다.
(전제 2) 자유는 인과적 연쇄와 연관된 사실들로부터 따라 나온다.
(전제 3)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사례에서 연관된 사실에 관한 차이가 없다.
(결론) 프랑크푸르트 시나리오에서 프랭크의 선택은 자유롭다.
(Sartorio(2016), 43쪽.)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실제-인과적 연쇄와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변형 사례는 실제-인과적 연쇄가 같다. 그리고 실제-인과적 연쇄만이 오로지 자유를 근거짓는다. 그렇다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의 자유는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변형 사례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제 3)이 성립한다.

사토리오는 앞서 책임 또한 인과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부재 인과를 받아들여도 두 사례의 인과적 연쇄는 같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음'과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는 사례에서 '신경과학자가 개입하지 않음'은 동일하게 연관된 부재 원인이다.

특히 여기서 "연관된 사실에 관한 차이가 없다"(Sartorio(2016), 43쪽)는 점에 주목하자. 두 사례는 자유와 연관된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프랭크의 자유와 연관되지 않은 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는 신경과학자가 개입할 생각이 있고, 변형 사례에서는 신경과학자가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프랭크가 C를 선택할 것이므로 실제 행위와 연관된

무언가가 아닌, 일종의 반사실적인 차이이다. 두 사례의 차이는 프랭크의 C 행위와 실제로 연관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랭크의 자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토리오는 자유를 실제-인과적 연쇄의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가 자유의지로 행동했다는 직관과 맞아떨어지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자유가 인과적 연쇄에 수반한다는 주장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을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사토리오는 행위의 자유에 관한 이유-민감성 이론을 실제-인과적 연쇄 이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한다. 이 수정된 이론이 바로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Causal Reasons-sensitivity; CRS)이다. 다음 장에서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제 3 절 CRS: 인과적 이유-민감성

앞절에서 어떤 행위 X를 낳은 실제-인과적 연쇄에 X와 관련된 자유가 수반한다는 주장을 보았다. 그런데 인과적 연쇄는 여러 곳에 있으며, 자유가 없는 인과적 연쇄 또한 있다. 따라서 자유를 수반하는 인과적 연쇄가 있고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인과적 연쇄가 있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가 행위 C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고 하자. 프랭크는 행위 C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프랭크를 조종하는 신경과학자에 의해 행위 C를 한다. 이 경우, 프랭크의 의도부터 결과로 구성된 일련의 인과적 연쇄는 프랭크의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유를 수반하는 인과적 역사와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인과적 역사는 무엇이 다른가? 바로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지 여부가 다르다.

본고는 앞서 기존의 이유-민감성 이론들을 살펴본 바가 있다. 기존 이유-민감성 이론들은 이유 R에 따라 행위 C를 하지 않았을 반사실적 상황에 주목한다. 그런데 기존 이유-민감성 이론들이 각각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민감성 이론은 메커니즘이 이유에 거의 민감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행위자가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행위를 달리 하지 않아서 메커니즘에 이유-민감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행된 메커니즘은 기존 프랭크와 같으므로, 이 이론 하에서 자유롭다고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유-민감성으로 그의 자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멕케나의 행위자 이유-민감성 이론은 행위자가 실제로 한 어떤 행위에 대해 반사실적 상황에서 그 자신의 이유에 따라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유-민감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조건은 너무 약한 자유만을 보장한다.

사토리오는 기존 이유-민감성 이론들의 문제의 근원은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이유-민감성을 설명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상황에 의존하는 대신, 어떤 행위를 할 때 '안 할 이유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할 이유도 있지만 안 할 이유가 없음에 따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토리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3] 이유가 사실이나 사태라면 이유의 부재는 사실이나 사태의 부재가 되고, 이유가 믿음이라면 이유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일 것이다. 사토리오는 이유의 본성이 사실이나 사태든 믿음이든 간에 자신의 이론이 성립하도록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의 쟁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유를 사실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사토리오는 그 행위를 할 이유에 더불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또한 인과적 연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내가 맑은 날이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당신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맑은 날이면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고 하자. 둘 다 맑은 날 밝은 색의 옷을 입었지만 둘의 인과적 연쇄는 다르다. 나는 맑은 날에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없어서 밝은 색 옷을 입었지만, 당신은 똑같은 맑은 날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의 존재 여부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과 유관한 이유가 되지 않을 뿐이다. 정리하면, 나는 밝은 색 옷을 입은 이유가 R1(날씨가 맑음)과 R2(밝은 옷을 입지 않을 이유-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음)의 부재이고, 당신이 밝은 색 옷을 입은 것은 R1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당신의 인과적

[23]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1쪽.

연쇄는 다르다. 이처럼, 이유의 부재는 자유를 근거짓는 인과적 연쇄에 포함된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기쁘면 펄쩍 뛰는 버릇이 있는 조이의 예를 들어보자. 조이는 기쁘면 펄쩍 뛰지만, 절벽 끝이나 천장이 낮은 승용차 안이라면 기뻐도 펄쩍 뛰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조이가 펄쩍 뛴다. 조이가 펄쩍 뛴 이유는 기뻐서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가 절벽 끝이나 천장이 낮은 승용차 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토리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인과적 가정에는 특정 이유와 특정 이유의 부재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토리오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민감성 조건을 제시한다.

> CRS(Causal Reasons-Sensitivity): 행위자가 어떤 식으로 행위할 때, 그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음에 더불어 그 행위를 그만둘 충분한 이유가 없음에 기반하여 행위할 때, 행위자는 이유-민감하다. (Sartorio (2016), 132쪽.)

여기서 어떤 이유의 부재가 행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CRS를 따르면 전통적인 이유-민감성 주장과 달리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토리오의 제안을 따르면, 자유를 근거짓는 인과적 연쇄에서 부재(Absence) 내지는 누락(Omission)이 원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재나 누락이 원인이라고 하면 반사실적 상황을 설명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인과적 이유-민감성은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랭크는 푸르트를 쏘기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는데, 이때 프랭크는 푸르트를 쏠 이유(이를테면, 푸르트가 프랭크의 아버지를 죽여서 복수하고자 한다.)에 더불어, 푸르트를 쏘지 않을 이유 R(푸르트에게 먹여 살려야 하는 5명의 아이가 있으며, 프랭크가 그것을 알게 된다.)이 없음에 따라 푸르트를 쏘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프랭크는 이유-민감하며,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푸르트를 쏘았다. 이 사실은 신경과학자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피셔와 라비자의 이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존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의 비교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때, 두 사례가 다른 모든 조건은 그대로이되 신경과학자가 없다고 해보자. 기존 사례의 프랭크는 이유 R을 알면 푸르트를 안 쏘고, R이 없으면 푸르트를 쏠 것이다. 반면 어떤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는 푸르트를 쏠 것이다.

이제 다시 신경과학자를 삽입하자. 그러면 기존 사례의 프랭크와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의 선택의 인과적 연쇄가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R이 부재하기에 둘다 푸르트를 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와 다르게, 여전히 어떤 이유들의 부재가 프랭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의 프랭크는 푸르트를 쏘지 않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푸르트를 쏘지 않겠다고 선택했을 것이다. 반면 복수심에 불타는 프랭크는 어떤 이유에도 푸르트를 쏠 것이다. 사토리오는 이유의 부재가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유의 부재가 원인이 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부재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인과를 의존 관계로 이해하면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과를 사건의 연쇄로 이해할 경우, 부재가 어떻게 사건들과 연쇄될 수 있겠는가? 부재가 원인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데, 사토리오는 반사실성에 의한 인과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재란 무엇이며, 부재 인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부재 인과에 대한 검토와 사토리오가 부재 인과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는 뒷장에서 다룰 것이다.

## 제 4 절 소결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인 자유가 '다르게 선택할 가능성'에 있다고 보는 대안-가능성 관점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다르게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도 자유로운 행위자를 보임으로써 반박된다. 따라서 자유가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수 있었다는 반사실적 조건은 자유에 대한 근거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자유를 근거짓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실로부터 자유가 나타난다는 실제-연쇄 관점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어떤 사실들이 자유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실제-연쇄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민감성(이유-반응성) 이론이 등장한다. 실제-연쇄 관점의 한 갈래를 지지하며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가능함을 보이고자 했던 사토리오는 인과를 실제-연쇄에 포함해서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ACS)을 발전시켰고, 실제-연쇄 관점과 함께 이유-민감성 이론을 인과적 이유-민감성(CRS) 이론으로 포섭했다. 이 두 이론에 따르면, 자유는 실제로

일어난 행위와 관련된 인과적 연쇄에서 산출되는 함수값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위자는 어떤 행위할 이유와 더불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게 된다. ACS와 CRS에서는 자유나 행위의 이유는 인과의 연쇄에 근거하므로, 당연히 인과적 결정론과 양립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이나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발전시키며 사토리오는 부재 인과 개념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토리오는 ACS를 주장하면서 책임 또한 자유와 마찬가지로 실제-인과적 연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의도의 부재를 원인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CRS를 제안함에도 행위자가 이유뿐만 아니라 이유의 부재에 민감하다는 설명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재 인과가 사토리오의 이론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재 인과는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는 개념이다. 본 장에서는 사토리오가 부재 인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은 부재 인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재 인과는 반사실성에 의한 설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반사실성에 의한 설명을 다시 끌어온다면 대안-가능성 관점이 갖는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토리오가 물론 반사실성에 의한 부재 인과를 거부하고 대신 차이-생성자로서의 원인 모델을 제안하긴 하지만, 정말 차이-생성자가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적 대안이 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부재 인과를 반사실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재 인과에 대한 논의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부재 인과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누락에 의한 원인 딜레마'(Dilemma of causation by omission)를 살펴보고 이를 기존 부재 인과를 다루는 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토리오가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인과로 설명하는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부재 인과 대신 유사-인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의 인과 이론에 대해서도 반사실적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 제 3 장 부재 인과

부재 인과가 무엇인가? 부재 인과의 대표적인 예로,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아서 꽃이 시들었다.'라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 상황은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음이 원인이 되어 꽃이 시듦을 야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원인이나 결과 또는 둘 다가 어떤 사건의 부재가 되는 경우를 통틀어 부재 인과라고 부른다.

부재 인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누락이 원인이 되어 사건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누락에 의한 인과, causation by omission), 사건이 원인이 되어 누락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방지, prevention), 누락이 원인이 되어 누락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누락에 의한 방지, prevention by omission)이다.

세 종류의 부재 인과 중, 사토리오의 ACS와 CRS에 주로 적용되는 것은 누락에 의한 인과이다. 사토리오는 누락이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고 의도의 부재가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본고의 초점은 ACS와 CRS에 적용될 수 있는 누락에 의한 인과가 여러 형이상학적 조건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누락에 의한 인과, 그 중에서도 행위자 인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사토리오의 ACS가 기반이 되는 수반 명제에서는 부재가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재 또한 연관된 인과적 역사에 포함되고 있으며, 부재-원인들이 자유를 근거짓는 데 연관이 된다. 예를 들어, 끼익대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서 내가 '먼 마을이 쓸려 내려갈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과적 역사가 달라지고, 자유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의 부재에 이유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CRS가 기존 이유-민감성 이론들과 보이는 차이이다. 부재하는 이유에 민감한 예로 조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을 때, 조이의 펄쩍 뛰는 행위가 '기쁘다'는 이유와 절벽 끝이라는 이유의 부재, '절벽 끝이 아님'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와 이유 부재에 민감한 행위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토리오의 이론에서 누락에 의한 인과는 설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토리오는 누락에 의한 인과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누락에 의한 인과는 누락이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인과 이론에서 누락을 무엇으로 이해하며 누락에 의한 인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라크(Clarke, (2014))는 행위의 부재를 누락(Omission)으로 이해할 때 누락을 설명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24] 첫 번째는 보통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누락을 부정 행위, 일반적인 사건으로 확장한다면 부정 사건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누락이 일어날 동안 하는 행위들이 누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는 대신 물을 주지 않을 동안 했던 잠자기, 산책하기 등이 꽃에 물을 주지 않는 누락을 구성한다. 세 번째는 누락이 아예 없다고 본다. 누락을 나타내는 부정 언어 표현이 있을 뿐, 실제 있었던 행위는 있는 그대로의 행위라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정원사는 실제로는 잠자기와 산책하기와 같은 것들을 했고, 우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이해한다. 두 번째와의 차이는 두 번째는 누락을 산책하기 등 실제로 있는 사건들이 구성한다고 보는 반면, 세 번째는 실제로 있는 사건들만이 존재하며 누락은 아예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누락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부재 인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 부정 사건으로서 누락을 수용하면 부재 인과가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실제 사건들의 구성물로서 누락을 받아들이면 누락이 아닌 누락의 구성 사건들이 인과항이 될 것이다. 실제 행위가 따로 있는데 이에 대해 부정 언어 표현을 써서 누락처럼 보인다는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누락 자체가 없다고 때문에 부재 인과가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부재 인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인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인과 이론에는 서로 병합하기 어려운 두 개의 직관이 있다. 바로 원인에 결과가 의존한다는 직관과, 원인과 결과가 연쇄되어 나타난다는 직관이다. 인과 이론은 어떤 직관에 더 중점을 두어 인과를 설명하는지에 따라 의존 인과와 생산 인과로 진영이 나뉜다. 의존 인과 진영은 반사실적 의존 관계나 규칙성, 확률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의존 관계로 인과를 이해한다. 반면 생산 인과 진영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적 연쇄로 이해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물리적 연결이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력의 합이 임계를 넘어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식이다. 본 장에서는 두 인과

[24] Clarke, R. (2014), *Omis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0-34쪽.

진영에서 누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각 어떻게 부재 인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보통의 경우 부재 인과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부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하기 위해, 다우(Dowe, (2001))와 같은 철학자는 부재 인과를 일종의 유사-인과(quasi-causation)로 이해하자고 주장한다. 다우에 따르면, 부재 인과는 반사실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을 법한 인과 과정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는 유사-인과다. 예를 들어,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아서 꽃이 시들었다고 하자. 실제 상황에서는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지 않았고, 꽃이 시들었지만, 반사실적 상황에서 정원사가 꽃에 물을 줬다고 가정하면 꽃에 물을 줌이 꽃이 생을 유지함과 상호작용했을 것이고, 꽃이 시들지 않았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반사실적 상황에서 '정원사가 꽃에 물을 준 것이 원인이 되어 꽃이 생을 유지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인과 작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재가 인과 작용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유사-인과라고 칭한다.

유사-인과를 받아들인다면 생산 인과 쪽에서도 부재 인과 진술이 참인 것처럼 느끼는 우리 직관에 대해 반사실적 설명을 제공하는 셈이다. 부재 인과에 대해서 반사실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누락-원인에 있어서는 반사실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견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인과를 통해 반사실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부재 인과 진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락에 의한 인과는 결국 다음과 같은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이 필자가 본 장에서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목표다. 이를 보이면, 사토리오의 이론에서 부재 인과, 혹은 유사-인과가 적용될 때 반사실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의 부재가 B의 원인이거나, 혹은 A의 부재가 B의 유사-원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A가 있었더라면 B가 없었거나, A가 부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B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부재 인과를 각 이론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개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부정 사건으로서 누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외 문제와 부재 인과가 문제되는 지점인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소개하고, 각각 의존 인과와 생산 인과라는 두 개의 큰 인과 이론에서 어떻게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해소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가 반사실성으로 설명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부재 인과에 있어서는 반사실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제 1 절 제외 문제와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

클라크의 분류를 받아들인다면, 사토리오는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가정하고 있다.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사토리오는 제외 문제를 제시한다. 제외 문제는 부재 인과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기 위한 사례이다.[25] 이 사례는 원인으로서의 누락, 결과로서의 누락, 행위자의 의도 누락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토리오는 제외 문제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서 누락을 원인이나 결과 모두 될 수 있는 인과적 관계항(relata)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 익사하는 아이: 물속에 익사하는 아이가 있다. 나는 아이를 보았고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아이를 구하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결정한다. (Sartorio(2009), 514쪽.)

이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인과 관계항 후보를 정리할 수 있다.

A1: 내가 뛰어들지 않으려는 의도 형성
O1: 내가 뛰어들려는 의도를 형성하지 않음
O2: 내가 뛰어들지 않음
A2: 내가 [뛰어드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음.

사토리오는 위 사례가 A1이 A2를 야기했거나 A1이 O2를 야기한 것이 아닌, O1이 O2를 야기하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도 누락이 원인이 되어, 행위의 누락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A2가 아닌 O2가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서 의도와 행위 사이의 행위자 인과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사건 사이에서도 누락에 의한 인과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A2와 O2는 구별되는데, 누락과 그 누락을 대신하는 행위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위해 사토리오는 A2가

[25] Sartorio, C. (2009), 'Omission and Causalism', *Nous* 43.3: 514쪽.

O2를 구성하거나 O2가 A2의 부정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근거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A. 아이를 구하는 대신 책을 읽는 것과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는 구별되지만 두 행위의 누락은 동일하다.
B. 행위와 그 행위 누락의 인과적 힘이 다르다. 예를 들어 A2는 다음날 복통을 유발하고 O2는 다음날 복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C. 누락은 있지만 누락을 대신하는 행위가 부재할 경우가 있으므로 누락이 행위와 동일시될 수 없다.

C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설명된다. 동물원 사육사가 지미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코끼리가 오지 못해서 대신 오랑우탄을 보여줬다. 지미는 실망하고 슬펐다. 이때 지미가 슬픈 원인은 코끼리를 보지 못한 것이지 오랑우탄을 본 것 때문에 슬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지미가 코끼리를 보는 행위의 누락을 대신하는 행위가 오랑우탄을 본 것이 될 수 없다. 코끼리를 보는 행위의 누락은 지미의 슬픔을 야기했지만, 오랑우탄을 본 것은 지미의 슬픔을 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누락을 대신하는 행위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토리오의 의견을 수용해서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자면, 장애물이 나타난다. 부재 인과 중 특히 누락에 의한 인과는 이상한 딜레마에 부딪힌다. 맥그라스는 다음과 같이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정의하고 있다.

> 누락이 원인이 되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결과 사건에 대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너무 많은 누락-원인이 있다. (McGrath(2005), 125쪽.)

아이의 익사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누락 원인이 있다. '나'만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도 아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이나 '안전요원이 아이를 구하지 않음' 모두 아이의 익사에 대한 누락-원인이 된다. 심지어, "30분 전에 외계인이 침공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음"도 아이의 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외계인이 침공했더라면 30분 더 빠르게 아이가 외계인에

의해 죽었을 것이고, 아이가 익사로 죽었다는 결과가 안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누락-원인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누락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수많은 원인이 모두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다.

딜레마를 부정하려면, 누락에 의한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너무 많은 누락-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된다. 물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누락에 의한 인과와 너무 많은 누락-원인을 전부 받아들이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뒤에서 살펴볼 과정 인과 이론이나 성향 인과 이론에서는, 누락이 원인 사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사실적 인과 이론의 원초적인 형태에서는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많은 누락-원인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좀더 세련된 제안은 가능세계의 근접성으로 유관한 누락-원인을 가려내거나, 규범성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의존 인과 진영에서 부재 인과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의존 인과에서는 대체로 누락에 의한 인과를 수용한다. 따라서 제외 문제에서의 고려 사항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반면, 누락에 의한 인과 딜레마에서 너무 많은 누락-원인들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떠안게 된다. 의존 인과가 무엇이며 누락에 의한 인과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제 2 절 의존 인과에서 부재 인과

의존 인과는 확률에 의해 인과를 이해하는 입장, 규칙성에 의해 인과를 이해하는 입장, 반사실적 의존성을 바탕으로 인과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확률에 의한 인과는 부재 인과에 대해 따지기 이전에, 결정론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과 이론이 아니다. 확률에 의해 무언가가 결정된다면 사건이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인과적 결정론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에 확률에 의한 인과 이론은 따로 다루지 않겠다.

다음으로 규칙성에 의한 인과 이론을 살펴보자. 규칙성 인과 이론은 사건 C가 사건 E를 야기함은 C 유형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규칙적으로 E 유형 사건이 뒤따라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정 사건으로 누락을 받아들이고 다른 변인을 고정한다면 한 사건 유형의 부재에 뒤따라 일어나는 사건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성 이론은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규칙성 인과에서 제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누락 원인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도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행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 아버지에 대해, 나와 다른 행인이 아이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아이의 죽음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반직관적인 귀결이다. 규칙성 인과 이론은 부재 인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루이스(Lewis, D. (1973))가 처음 제시한 반사실적 인과 이론을 살펴보자.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면 A와 B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성이 성립한다. 이때 A와 B 사이에 반사실적 의존 사슬이 있다면 인과 관계가 성립하고, A는 B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의존 인과에서는 누락이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 부재에 의한 인과를 반사실적 의존으로 쉽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제외 문제에서도 ‘내가 아이를 구했더라면 아이는 살았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성립하므로,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을 ‘아이의 죽음’의 원인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제외 문제는 의존 인과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락을 원인으로 두는 누락에 의한 인과는 부재 인과의 딜레마에 부딪힌다. 누락에 의한 인과에는 너무 많은 누락-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위 아이의 익사와 관련한 누락은 다음과 같은 반사실적 문장들로 설명된다.

(1) 만일 내가 물에 뛰어들었더라면 아이는 익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었더라면 아이는 익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만일 30분 전에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를 멸망시켰더라면 아이는 익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성립하므로, ‘내가 물에 뛰어들지 않음’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지 않음’이나 심지어 ‘30분 전에 외계인이 침공해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음’도 누락-원인이 되어버린다. 이외에도 상식과 어긋나는 수많은 누락-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반사실적 인과 이론은 여러 방식으로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루이스의 방식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수의 누락이 한 사건의 원인이 맞으며, 다른 누락들을 제외하고 한 가지 누락을 짚어서 원인이라 가리키는 것은 화용론적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이 반박된다: 우리의 직관이 무관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누락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는 전부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화용론적인 설명을 위해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들을 원인으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여긴다.[26]

두 번째 설명은 너무 많은 누락을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 일어난 누락이 원인이라고 받아들인다. 앞서의 (1)~(3)에 대해, 근처에 있는 것은 '나'이고, 아이의 아버지는 멀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외계인은 없다고 하자. 그러면 (1)이 가장 설명력이 있고 (2)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럴듯하며, (3)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직관은 반사실적 상황이 현실세계와 얼마나 근접한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은 '내'가 근처에 있었고 뛰어들었는지 여부만 달라지는 가능세계를 떠올리게 하며, (2)는 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아이 옆에 있어야 하는 가능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3)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세계, 즉 (1), (2), (3) 중 현실세계에서 가장 먼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즉, 누락에 대한 인과적 유관성은 가능세계의 근접성에 의해 설명된다.

이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접근은 누락에 의한 결과가 방지되는 가장 근접한 가능세계에서 유관한 원인만이 올바른 누락-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누락-원인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누락에 의한 결과가 방지되는 가능세계의 근접성에 따라 그 유관한 정도가 달라지므로, 관련성이 낮은 탓에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누락-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해 반례가 있다. 다음 두 반례는 가능세계 설명에 대한 맥그라스(2005)의 반례를 사토리오의 예시에 알맞게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 반례 1: 나는 악인이며, 아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 아이의 죽음이 방지되었을 가능세계 중 가장 가까운

[26] McGrath, S. (2005), 'Causation by Omission a Dilemma', *Philosophical Studies* 123: 125-148.

가능세계는 내가 아이를 구하는 가능세계가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접근에 따르면, 아이가 죽은 것은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과 아이의 죽음 사이에는 반사실적 의존 사슬이 성립하므로, 인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반례 2: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나에게 아이가 물에 빠지면 구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해놓고 까먹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가능 세계는 아버지가 내게 부탁해서 내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죽음의 원인은 내가 아버지의 부탁을 듣지 않아서 아이를 구하지 않음이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반례 1과 반례 2에서,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의 원인이 상식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례 1은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이가 죽은 원인인데,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도 아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하게 틀린 것처럼 보인다. 반례 2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이가 죽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 유관한 원인이 아니므로 아이가 죽은 원인이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또한 직관에 위배되는 설명이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가능세계의 원인만이 올바른 누락-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각각의 가능세계의 근접성에 따라 유관한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를 보자. 유관한 정도가 다를 뿐이므로 반례 1에서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 역시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례 2에서 아버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또한 아이가 죽은 원인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관한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는 수많은 누락에 의한 원인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설명을 통해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27] 규범적 설명은 실제로 일어난 인과에는 수많은 누락-원인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규범적 인식이 그 중 어떤 것만 원인이라고 여기기

[27] McGrath, S. (2005), 'Causation by Omission: A Dilemma', *Philosophical Studies* 123.

때문에 딜레마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규범적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앎을 근거로 수많은 누락-원인 중 어떤 것만을 원인으로 짚어낸다. 이때 정상이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윤리적인 규범으로 누락-원인을 가려내고자 하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 윤리적인 규범으로는 행위와 관련된 누락 원인이 아닌 물리적인 종류의 부재 인과를 해명할 수 없다. 맥그라스에 따르면 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앎에 대한 기술적 표현이다.[28] 이 앎은 윤리적인 규범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물리적인 상식도 포함한다.

규범적 설명은 앞서 보인 반례 1과 반례 2를 모두 설명한다. 내가 악인이고 아이가 죽기를 바란다면 아이를 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예측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은 것이 정상적인 원인이다. 반례 2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이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정신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돌보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로 인해 아이가 죽는 것도 정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정상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의존 인과 진영에서는 결정론을 가정한다면 반사실적 인과 이론만이 부재 인과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생산 인과 진영에서 부재 인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본다. 생산 인과에서는 대체로 누락을 부정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사건들의 구성물로 보거나, 실제 사건에 대한 부정 언어 표현이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부재 인과를 부정한다. 그래서 부재 인과가 있는 듯 여기는 우리의 직관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제시되는 한 가지 설명이 바로 유사-인과다(Dowe(2004)). 부재 인과를 일종의 유사-인과로 받아들이는 진영에서는 생산적인 인과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반사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과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너무 많은 누락-원인 딜레마에 다시 부딪히게 된다.

## 제 3 절 생산 인과에서 부재 인과

생산 인과는 사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생긴다고

[28] McGrath, S. (2005), 'Causation by Omission: A Dilemma', *Philosophical Studies* 123: 140쪽.

해석하는 입장이다. 의존 인과와 다르게 원인과 결과가 맺는 관계로 인과를 설명하지 않는다. 생산 인과는 크게 과정 인과와 성향 인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과정 인과는 사건 사이의 물리적인 연결로 인과를 이해한다. 성향 인과는 원인들의 인과적 성향에 따른 인과력의 합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과를 이해한다.

생산 인과에서는 대체로 부재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재는 물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어떤 성향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사건들의 구성을 통해 누락이 있거나, 실제 사건에 대한 부정 언어 표현이 누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과정 인과와 성향 인과로 나눠서 각각 인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부재 인과에 대한 직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과정 인과 이론은 사건 사이의 물리적 연결에 따라 인과가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과정 인과 이론은 인과를 과정을 통해 나타나거나 인과항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비관계적 속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29] 이 이론에서는 인과적 상호작용과 인과적 연쇄를 통해 인과적 영향이 전달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창문에 돌을 던져서 돌이 어떤 속력과 방향으로 날아가는 일련의 인과적 연쇄가 창문과 만나면서 인과적인 영향이 전달되고, 창문이 깨지는 인과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식이다.

과정 인과 이론의 특성상, 긍정(positive) 사건만이 인과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누락에 의한 인과를 일반적인 인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과정 인과 이론을 옹호하는 다우는 누락에 의한 인과를 진짜 인과가 아닌 유사-인과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30] 즉 반사실적으로 인과와 비슷하게 설명이 되지만, 나타날 수 있었던 인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성향 인과 이론은 과정 인과와 마찬가지로 생산 인과에 속하며, 부재 인과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성향적 인과 이론에 따르면, 특정 원인들은 특정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성향이 있고, 성향의 합이 그 특정 결과를 생산한다. 성향 인과 이론은 인과가 다원적polygenic이며 여러 원인이 가진 인과력의 합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는

---

[29] 최성호·김효은, (2009), 「새먼의 과정 인과 이론」, 『철학적 분석』 20: 141-168.

[30] Dowe, P. (2001), 'A Counterfactual Theory of Prevention and 'Causation' by Omis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2, 216-226.

것으로 이해한다. 멈포드와 안줌(Mumford and Anjum(2010))은 성향적 인과를 벡터 모델로 설명하고자 한다. 1차원의 선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지평선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수직인 인과력이 여러 개 작용하고 있다. 반대방향의 인과력은 서로를 상쇄하고, 같은 방향의 인과력은 합해서 결과로 향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총 인과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결과가 실현될 수 있다.

성향 인과 이론은 부재하는 것이 인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대신, 원래 부재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균형을 이뤘을 반대 방향의 인과력이 작용해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한다. 성향적 인과 이론에 따르면,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구함'이라는 방향의 인과력으로 '아이의 폐에 물이 들어가 작동을 멈춤'이라는 반대 방향의 인과력이 상쇄되지 않아서 '아이의 죽음'을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부재 인과를 통하지 않고도, 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가능하다.

그런데 성향 인과 이론은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현상을 온전히 해명한다고 보기에는 불투명한 점이 있다. 성향 인과 이론은 누락에 대응하는 원인이 없을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린 지미가 코끼리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코끼리가 동물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결국 코끼리를 보지 못했고 슬퍼졌다고 하자. 지미의 슬픔은 코끼리를 보지 못함 외에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이며, '코끼리가 동물원에 있음'이라는 인과력이 작용하지 않고 다른 원인항들이 인과력을 작용해 지미가 슬퍼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혹자는 '코끼리가 오늘 안 와.'라고 사육사가 말했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미가 코끼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미가 슬퍼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육사가 말을 안 해주고 코끼리를 기다리는 내내 보지 못한 지미가 코끼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깨달아서 슬퍼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상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고의 쟁점은 아니기에, 성향 인과로 설명가능하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내가 보기에 성향 인과 이론에서 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다우가 앞서 제시한 유사-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향 인과 이론의 한 관점을 제시한 멈포드와 안줌도 누락에 의한 인과에 대해서는 유사 인과의 설명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31]

[31] Mumford, S. and Anjum, R, (2010), 'A powerful theory of causation', *The*

이제 유사 인과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자. 유사 인과는 긍정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근거해서 부재가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왔다. A와 B를 특정 긍정적 사건이라고 하고, x는 사건에 대한 변항이라고 하면, 누락에 의한 인과, 방지, 누락에 의한 방지를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우환(2020)이 유사 인과를 다시 정리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누락에 의한 인과만 고려하면 되지만, 누락에 의한 인과는 방지 개념에 따라 정의되므로 방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방지>
(P) 방지: A는 발생했고, B는 발생하지 않았고,
(P1) x에 기인한 과정과 A 사이에 인과적 상호작용이 있었고,
(P2)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x가 B를 야기했을 것이다.
를 만족하는 x가 발생했을 경우에, A는 B를 방지했다. (선우환, 『때문에』, 341쪽에서 재인용; Dowe (2001), 216-217, 221-223, Dowe (2004), 192-194.)

부재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A 사건이 B를 막은 것이 아니다.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A 사건과 관련된 x라는 과정이 B를 일으켰을 것인데, 실제로는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물에 뛰어드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아이가 죽었다.' 대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며, 물에 뛰어들면 아이를 구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누락에 의한 인과를 보자.

<누락에 의한 인과>
(O) 누락: B는 발생했고, A는 발생하지 않았다.
(O1) x가 B를 야기했다.
(O2) A가 발생했더라면, x와 상호작용에 의해 A는 B를 방지했을 것이다.
를 만족하는 x가 발생했을 경우에, A 아님은 B를 유사-야기했다. (선우환, 『때문에』, 342쪽에서 재인용; Dowe (2001), 216-217, 221-223, Dowe (2004), 192-194.)

---

*Metaphysics of Powers*, Routledge: 155쪽.

누락에 의한 인과는 방지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며, 역시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A의 누락이 B를 유사-야기했다.’는 A가 발생했더라면 B를 방지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이 아이의 죽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구했더라면 아이의 죽음을 방지했을 것’으로 설명된다.

각각의 유사 인과는 반사실적 가능성을 통해서 부재 인과를 설명한다. 누락에 의한 방지 또한 만약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A 사건이 발생했더라면, 사건 A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 B를 야기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가정을 토대로 A의 누락이 B의 누락을 유사-야기한 것으로 설명한다. 방지는 A는 실제로 발생했고 B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변항 x가 A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x가 B를 야기했을 것이란 반사실적 가정을 토대로 성립하며 유사-인과에 속한다. 누락에 의한 인과는 유사-인과에 속하는 방지가 반사실적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유사-인과로서 성립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유사-인과라면, 유사-인과는 다시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와 조우하게 된다. 이 경우, 앞장에서 이야기한 의존 인과 진영에서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 부재 인과를 둘러싼 다양한 인과 이론을 살펴보았다. 어떤 인과 이론은 부재 인과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인과 이론은 부재 인과에 대한 직관을 수용하기 위해 반사실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존 인과 진영은 부재 인과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해석하므로, 의존 인과 진영에서 부재 인과를 받아들인다면 사토리오가 제시한 제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면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에 부딪힌다. 결정론과 양립가능한 의존 인과 진영 중 반사실적 인과 이론만이 규범적 설명을 통해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부재 인과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생산 인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부재 인과를 수용할 수 없다. 생산 인과 진영에서는

부재 인과를 진짜 인과가 아닌 유사-인과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유사-인과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일어났을 인과가 안 일어난 것을 일상적으로 부재 인과가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다고 설명을 제공한다.

부재 인과는 반사실적 인과에서만 잘 설명이 가능하며, 유사-인과 또한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이다. 어떤 인과 이론이라도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식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A의 부재가 B의 원인이거나, 혹은 A의 부재가 B의 유사-원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A가 있었더라면 B가 없었거나, A가 부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B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토리오의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과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이 부재 인과, 혹은 적어도 그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를 상정한 채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 인과에 대한 위의 정식화를 받아들이면 사토리오의 이론이 어떤 귀결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 제 4 장 반사실적 설명과 프랑크푸르트 사례

사토리오는 원인이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 차이-생성자(difference-make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과를 해석하자고 주장한다.[32] 사토리오의 차이-생성 인과는 부재를 부정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인과항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부재 인과를 차이-생성 인과가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우선 인과에 대한 형이상학적 가정인 차이-생성 인과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차이-생성 인과 역시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여야 함을 보일 것이다.

사토리오는 부재 인과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 이론은 거부하지만,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까지 거부하려고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반사실적 인과에서 받아들이는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을 포기한다면, 부재 인과에 대한 다음으로 그럴듯한 설명은, 부재 인과는 진짜 인과가 될 수 없지만 일종의 인과적인 설명 역할을 하는 유사-인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생산 인과 쪽의 다수가 부재 인과를 유사-인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 2절에서는 부재 인과를 실제 인과가 아닌 유사-인과로 받아들였을 때 ACS와 CRS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부재 인과에 따르면 ACS와 CRS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이상한 귀결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상한 귀결이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충분히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이 귀결로 나오는 것이다. 자유가 대안-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행위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직관적으로 잘못된 귀결을 얻는다. 또한 기존의 이유-반응성 이론들은, 사토리오에 따르면,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혔다. 그런데 ACS와 CRS가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선택할 수 없어도 자유로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는 이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

[32] Sartorio, C. (2005), 'Causes as Difference-Makers', *Philosophical Studies* 123. 1-2: 71-96.

## 제 1 절 차이-생성 인과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ACS와 CRS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사례에 도입해서 검토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사토리오가 제시한 인과 이론 하나가 혹시 부재 인과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부재 인과를 반사실성이 아닌 다른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론적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토리오는 인과에서 원인이 결과의 차이-생성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인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토리오는 이 차이-생성에 따른 인과 모델에서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생성 인과 이론은 이미 그 정의에서 누락에 의한 인과가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토리오는 차이-생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차이-생성하는 원인(Causes as Different-Makers): 만약 행위자가 특정한 방식 W로 행위한 것이 결과 E를 야기했고, 행위자가 행위를 W로 하지 않았다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W방식으로 E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행위를 특정한 방식 W로 하지 않은 것이 결과 E를 야기했고, 행위자가 그 행위를 W방식으로 했더라면, W방식으로 행위한 것은 E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Sartorio(2005), 80쪽.)

차이-생성 인과에서, 어떤 원인 C가 W방식으로 E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한다면, C가 이어지는 사건에 차이를 주는 것이 E를 야기했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원인 C가 부재해도 결과 E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존재했을 때 그 결과를 야기했을 방식 W로 결과 E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토리오는 차이-생성의 예로 완벽한 군인이 모여있는 군대를 든다.[33] 이 하나하나의 완벽한 군인들은 완벽해서 임무 수행에 있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을 무작위로 골라 넣으면 완벽하고 교체해도 똑같은

[33]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5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의 군대가 되며, 그들은 행위에 있어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아예 어떤 역할에 있어 군인이 부재하는 경우가 생기면, 군인이 부재하는 그 위치는 더 이상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재가 차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토리오는 차이-생성 인과에 대해, 부재 또한 누락-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4] 따라서 차이-생성 인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차이-생성 인과는 부재 인과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음 대표적인 부재 인과의 예시를 보자.

(1) 정원사가 물을 주지 않음은 꽃이 시들도록 야기했다.
(2)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이 아이가 익사하도록 야기했다.

차이-생성 인과는 (1)과 (2)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정원사가 물을 주지 않음은 정원사가 특정 방식으로 물을 주는 경우 야기하지 않았을 결과로 꽃이 시드는 것을 야기했다.
(2')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음은 내가 특정 방식으로 아이를 구하는 경우 일어나지 않았을 결과로 아이가 익사하도록 야기했다.

(1')이나 (2')은 (1)이나 (2)를 보다 기초적인 개념으로 환원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반사실적 설명으로 (1)이나 (2)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과 (2)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정원사가 물을 주었더라면, 꽃이 시들지 않았을 것이다.
(2") 내가 아이를 구했더라면, 아이가 익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인과적 사실을 포함한 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35]

(1"') 정원사가 물을 주었더라면, 그 물 주는 사건이 꽃이

[34] Sartorio, C. (2005), 'Causes as Difference-Makers', *Philosophical Studies* 123(1-2): 71-96.
[35] 지도교수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싱그러움을 유지하도록 야기했을 것이다.
(2''') 내가 아이를 구했더라면, 내가 아이를 구하는 사건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야기했을 것이다.

(1")은 정원사가 물을 주는 것이 꽃이 계속 살아있음을 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이 된다. (2")는 내가 아이를 구해서 아이가 삶을 이어감을 야기했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반사실적 설명이 된다. (1''')와 (2''')는 부재를 인과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반사실적 상황에서 긍정 사건에 의한 인과가 성립했을 것임에 대한 설명이 된다.

중요한 것은, 차이-생성 인과가 그 자체로 부재 인과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생성 인과는 부재 인과를 포함하지만 부재 인과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차이-생성으로서 원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재 인과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앞장에서 부재 인과는 반사실적 설명을 필요로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차이-생성 인과에서 또한 부재가 인과항이 될 때는 반사실적 설명을 통해 부재 인과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반사실적 설명을 수용하면 누락에 의한 인과를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무엇보다 인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기반 빈약을 해소할 수 있다. 애초에 차이-생성 인과는 부재 인과를 포함해서 인과가 무엇인지 보이기 위한 이론이 아니기에, 더 근본적으로 인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으로 포섭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 없이는 차이-생성 인과는 인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묘사한 그림일 뿐이다.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 이론을 거부하고 있고, 차이-생성 인과는 인과의 본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때 사토리오가 생산 인과 이론을 좀더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런데 생산 인과 진영에서는 사토리오가 자신의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로 전제하는 부재 인과를 진짜 인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안은 부재 인과에 대해서는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유사-인과로 부재 인과를 설명하는 생산 인과 쪽과도 사토리오의 이론이 공존할 길이 열린다. 다음 장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 제 2 절 ACS · CRS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부재 인과는 대부분의 인과 이론에서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대부분의 인과 이론에서 부재 인과가 인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사실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어떤 인과 이론에서는 부재 인과가 인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토리오는 부재 인과를 가정해서 자신의 이론에 쓰고 있지만, 부재 인과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만한 것은 아니다. 사토리오가 제안한 인과의 특징인 차이-생성 인과도 부재 인과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ACS와 CRS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재 인과 자체를 도입하는 대신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A의 부재가 B의 원인이거나, 혹은 A의 부재가 B의 유사-원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A가 있었더라면 B가 없었거나, A가 부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B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페러붐도 사토리오의 저서를 리뷰하면서 부재 인과를 도입하는 대신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Pereboom(2018)). 더군다나 생산 인과 입장의 다수는 누락이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부재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다(Dowe(2001); Mumford and Anjum(2010)). 사토리오도 저서에서 다우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유사-인과를 받아들여도 좋으며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특정 인과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특히, 다우는, 누락이 원인이 될 수 없더라도, 그들이 "유사-원인"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사-인과가 이런 경우에 책임을 근거지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거칠게 말해, 다우에게, 유사-인과는 가능 인과(possible causation)이다. 이게 유사 인과를 인과보다 덜 기초적인 관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우에 따르면, 이는 책임을 근거짓기에 충분히 근본적(substantial)이다. (Sartorio(2016), 49쪽.)

사토리오가 다우의 유사-인과가 자신의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부재 인과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부재 인과가

진정한 인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페러붐의 제안은 받아들일 만하다. 페러붐은 자유의지를 근거짓는 것이 "단지 실제 인과적 연쇄가 아닌 행위의 인과적 설명에서 불러일으켜진 실제 인과적 연쇄의 요소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36] 바라보자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 자유를 근거지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인과뿐만 아니라, 실제 인과적 연쇄는 아니지만 인과적 설명이 가능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에 사토리오가 제시한 실제-인과적 연쇄 관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자유의지를 근거짓는 것뿐이다. 물을 안 줘서 식물이 죽었다는 것이 인과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정확하게 말해 형이상학적으로 인과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 제안은 보다 다양한 인과 이론을 바탕으로 ACS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사토리오는 인과가 반사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부재 인과도 반사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허용한다고 해서 부재 인과 자체가 반사실적이라는 주장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는 것과 이 사건 자체가 형이상학적으로 반사실적이라는 주장은 다른 주장이다. 물을 주지 않아서 식물이 죽었다는 사건이 반사실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유사-인과만 받아들여도 동의하지만, 물을 주지 않음과 식물이 죽었다는 사건이 반사실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반사실적 인과 이론의 지지자들뿐이다.

그렇다면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여도 사토리오의 ACS와 CRS 이론이 유지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사토리오의 기존 주장을 정리할 수 있다.

> (기존 주장) 행위자의 행위 A가 자유 행위라는 사실은, 행위자가 A를 하는 이유에 따라 실제로 작동한 A의 인과적 사실에 근거하며, 그러한 인과적 사실에는 **부재 인과에 따른 사실**도 포함된다.

필자의 수정 제안은 부재 인과 대신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36] Pereboom, D, (2018), 'On Carolina Sartorio's "Causation and Free Will"', *Philosophical Studies* 175: 1538쪽.

설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정 제안) 행위자의 행위 A가 자유 행위라는 사실은, 행위자가 A를 하는 이유에 따라 실제로 작동한 A의 인과적 사실에 근거하며, 그러한 인과적 사실 중 **부재에 대해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 있다.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자유로운 행위 A의 인과적 사실에 부재항이 포함될 경우에도 A가 자유롭다는 것을 어떤 인과 이론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부재 인과를 인정하지 않아서 기존 주장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반사실적 설명이 ACS, CRS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사실적 설명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필자가 보기에 ACS와 CRS는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인과의 반사실성을 거부하면서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로 부재 인과를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이론은 반사실적 인과 이론이었다. 사토리오는 인과의 반사실성을 거부하므로 반사실적 인과 이론을 ACS와 CRS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탈출구는 부재 인과가 유사-인과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유사-인과는 실제 인과가 아니라 인과적으로 설명되는 인과 외의 요소이다. 실제 인과적 연쇄뿐만 아니라 인과적으로 설명되는 다른 요소들도 자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때에만, ACS와 CRS는 부재 인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부재 인과 대신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사실, 즉 유사-인과를 도입함으로써 ACS와 CRS는 생산 인과 진영의 다양한 인과 이론에 적용되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의혹을 던질 수도 있다.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은 결국 인과적 설명이 반사실성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으로 ACS나 CRS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반사실적 설명으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다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 제 3 절 프랑크푸르트 사례와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실제와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을 실행하지 못한다. 다르게 행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를 했으므로 자유롭다. 반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행위자 프랭크가 행위 C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경과학자가 개입해서 행위 C를 하게 된다. 즉, C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 프랭크는 자유롭지 않다.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반사실적 상황을 끌고 오면 더 이상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자유를 설명하고자 한 대안-가능성 관점 대신, 피셔와 라비자, 멕케나와 같은 실제-연쇄 관점의 추종자들은 자유가 어떻게 행위 원천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유-민감성 이론을 끌어들였다. 사토리오에 따르면, 그들의 이유-민감성 이론은 반사실적 상황을 통해 자유를 분석하므로 결국 자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37] 그런데 사토리오의 이론은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인 인과적 설명을 받아들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앞 절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사토리오의 자유 또한 결국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인 설명에 근거하게 된다.

그렇다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행위자가 (수정 제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앞서 본 (수정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수정 제안) 행위자의 행위 A가 자유 행위라는 사실은, 행위자가 A를 하는 이유에 따라 실제로 작동한 A의 인과적 사실에 근거하며, 그러한 인과적 사실 중 **부재에 대해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 있다.

사토리오의 프랑크푸르트 유형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신경과학자가 비밀스럽게 C라는 특정 선택을 할지를 숙고하고 있는 프랭크라는 행위자의 뇌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경과학자는

[37]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8-122쪽.

> 프랭크의 뇌 활동을 봄으로써 그의 선택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고, 프랭크가 C를 선택하도록 뇌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프랭크가 그 스스로 C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한다면 [C를 하도록 뇌를 조작해서] 개입할 계획이다. (프랭크가 그 스스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신경과학자의 개입 없이, 프랭크는 그 스스로의 이유에 동기부여되어, C를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Sartorio(2016), 13쪽.)

프랭크는 실제 상황에서 행위 C를 선택했고, 그의 행위는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워 보인다. 2장에서 우리는 인과적 이유-민감성이 프랭크의 행위가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함을 보았다.

프랭크가 이유 R이 있을 때는 C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C를 수행할 이유에 더불어 이유 R의 부재에 따라, 프랭크는 C 행위를 수행한다. 이때 C 행위는 푸르트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고, R은 푸르트에게 5명의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살려면 푸르트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는 그에 대한 프랭크의 앎이라고 하자. 인과적 이유-민감성에 따라, 프랭크는 실제로는 C를 하지 않을 이유 R이 없음에 따라 C를 한다.

사토리오의 이론에서 실제로는 C를 하지 않을 이유 R이 없음에 따라 C를 한다는 것은 부재에 따른 행위 인과로 이해된다. (수정 제안)에 따라, 이는 다시 부재에 대해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인과적 사실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R이 없음에 따라 C를 함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프랭크는 이유 R이 있었더라면, 행위 C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유사-인과 설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x는 '푸르트가 프랭크의 아버지를 죽여서 프랭크가 푸르트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 (유사-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실제 상황에서는 이유 R이 없고 C는 발생했다. x가 C를 야기했다. 그런데 이유 R이 있었더라면, 이유 R과 x의 상호작용에 의해 행위 C를 방지했을 것이다.

이때, 방지 개념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R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x가 C를 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의 설명이 어느 쪽이든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가 행위 C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면, 신경과학자의 개입에 의해 프랭크가 행위 C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두 문장은 거짓이며, 다음이 참이다.

프랭크는 이유 R이 있었더라면, (신경과학자의 개입에 의해) C를 했을 것이다.

인과적 이유-민감성은 부재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의존하고, 부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반사실적 설명에 의존하며, 반사실적 설명은 프랭크의 자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과적 이유-민감성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R이 있었더라면 신경과학자의 개입에 의해 C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프랭크의 실제 행위는 여전히 자유롭다. 그렇다면 혹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프랭크가 자기 자신의 이유에 따라 C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과적 이유-민감성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약간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멕케나가 시도한 것처럼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유에 동기부여되어 실제로 한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면'과 같은 조건을 붙이면 프랭크의 자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멕케나의 시도를 따라하는 것은, 사토리오가 지적하듯이, 너무 약한 자유만을 보장할 것이다.[38] 더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면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통해 사토리오가 보이려고 한 시도의 핵심을 포착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을 통해 사토리오가 얻고자 하는 바는 반사실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의 목적은 오로지 실제 상황에 따른 이유만이 자유로운 행위의 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반사실적 상황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다소 임시방편적이다.

정리하면, 사토리오의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은 부재 인과 또는

[38]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9쪽.

유사-인과를 통해 해명을 시도할 경우, 반사실적 설명을 하게 되어 사토리오가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를 실제 있는 사건만으로 설명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인과적 이유-민감성 이론에 쓰이는 부재하는 행위의 원인을 해명할 때,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 또는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유사-인과 설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 제 4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사토리오의 이론에서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려면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인 인과적 설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반사실적인 설명을 수용하면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올바르지 못한 귀결에 봉착한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다.

ACS와 CRS에서 부재가 인과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누락을 부정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사건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로 여기는 것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재 인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ACS와 CRS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앞 장에서 부재 인과는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부재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ACS와 CRS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토리오가 제시한 차이-생성 인과가 부재 인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사토리오가 인과에 대한 형이상학적 전제 중 하나로 제시한 차이-생성 인과는 원인(또는 원인의 부재)이 그 원인의 부재(부재의 짝이 되는 원인)은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에 차이를 만든다는 주장이다. 차이-생성 인과는 부재 인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차이-생성 인과는 그 정의로부터 누락에 의한 인과를 가정하고 있다.

다른 인과 이론을 받아들여도,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수용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부재를 부정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인과 이론은 규칙성 인과나 반사실적 인과다. 규칙성 인과는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사실적 인과만이 부재 인과를 수용할 수 있고, 반사실적 인과를 거부하려면 부재 인과도 포기해야 한다. 한편 유사-인과로서 부재 인과 설명은 반사실적 상황에서 일어났을 인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부재 인과처럼 보인다는 반사실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수용할 때에만, ACS와 CRS가 성립할 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수용하면, ACS와 CRS가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대안-가능성 관점이 맞닥뜨렸던 이상한 귀결로 회귀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 직관에 따르면 프랭크는 자유로운 행위를 했는데, 부재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인 ACS와 CRS는 프랭크가 자유로운 행위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제 5 장 결 론

본고는 자유의지와 인과적 결정론이 양립가능하다는 입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행위의 원천에 자유가 근거한다고 보는 원천 양립가능론의 갈래 중 하나인 사토리오의 실제-인과적 연쇄 이론(ACS)과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행위를 설명하는 인과적 이유 민감성 이론(CRS)의 설명이 정말로 자유로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그래서 이들 입장이 채택한 형이상학적 가정인 부재 인과에 대해 여러 인과 이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 인과 이론에서 부재 인과는 반사실적 인과로 받아들여지거나, 인과가 아닌 반사실적인 인과적 설명으로 여겨진다. ACS와 CRS는 부재 인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반사실적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CS와 CRS는 인과 자체가 아닌 인과적 설명에 대한 이론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제시한 사례의 사고 실험을 기점으로 양립가능론은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뉜다. 첫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사례가 잘못되었으며, 대안가능성에 의한 자유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는 소수 입장이다.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귀결을 수용하되 대안가능성이 아닌 행위의 원천에 자유가 근거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본고에서는 이 입장을 위주로 다뤘다. 이 중 실제-연쇄 관점은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에 자유가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연쇄 관점에서 나온 이유-반응성 이론은 행위자의 자유의지의 발현이 이유에 따라 행동함에 있다고 보는데, 다시 프랑크푸르트 사례의 귀결과 충돌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가능성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멕케나의 행위자 이유-반응성, 행위자가 아닌 행위의 메커니즘이 이유에 반응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반응성 이론이다. 두 입장 모두 각각의 한계를 가진다. 멕케나의 행위자 이유-반응성 이론은 반사실적 상황에서 자신의 이유에 동기부여되어 (실제 상황에서 수행한)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를 근거짓기에 너무 약한 조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피셔와 라비자의 메커니즘 이유-반응성은 이유-반응적이지 않은 행위자와 이유-반응적인 행위자의 실제 메커니즘은 동일해보이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인과적 연쇄(ACS)는 실제-연쇄 입장에 속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련의 인과적 역사에 행위자의 자유가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인과적 이유-민감성(CRS)이다. 이유-민감성은 기존의 이유-반응성 개념을 사토리오가 새롭게 보완하여 해석한 것으로, 할 이유에 더불어 하지 않을 이유의 부재에 따라 행위한다면 행위자가 이유-민감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유-민감하게 행위했다면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CRS는 이유의 부재가 존재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ACS와 CRS는 부재 인과를 가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재 인과는 어떤 인과 이론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반사실적 인과만이 문제 없이 부재 인과를 인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를 거부하면서 부재 인과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형이상학적 밑작업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그 형이상학적 밑작업이 제공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부재 인과를 기존 인과 이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검토했다.

인과는 크게 의존 인과와 생산 인과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의존 인과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모종의 의존 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확률에 의한 인과, 규칙성에 의한 인과, 반사실적 인과가 이에 속하는데, 확률에 의한 인과는 결정론과 충돌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면 누락에 의한 인과의 딜레마에 처한다. 우리가 원인으로 짚는 것보다 더 많은 누락-원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직 반사실적 인과만이 규범적 설명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명할 수 있다.

생산 인과는 사건 사이 일련의 상호작용에 따라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입장으로, 부재 자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부재 인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 인과 문장이 참이라는 우리의 직관이 있으므로 이를 해명해야 한다. 생산 인과는 한 가지 대안으로 반사실적 상황에서 사건 사이의 인과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 진짜 인과는 아닌 유사-인과로서 부재 인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인과적 설명의 기능은 하되 진짜 인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유사-인과는 반사실적으로 설명된다.

한편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의 대안으로 차이-생성자로서의 원인을 제시한다.[39] 반사실적 인과의 대안으로 제시된 차이-생성자는 원인이(혹은 그 원인의 부재가) 그 원인의 부재가(혹은 부재에 대응하는 원인의 존재가)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원인의 부재가 무언가를 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차이-생성 입장은 누락에 의한 인과를 기저에 상정하고 있다. 이때 누락에 의한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을 받아들이면 차이-생성자의 토대에 대해 좀더 납득할만한 제안이 될 것이다. 또한 생산 인과 이론에서도 유사-인과로서 부재 인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사실적 설명을 토대로 한다면 차이-생성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생산 인과 이론에서 CRS를 받아들이기 수월해질 수 있다.

ACS와 CRS는 부재 인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즉, 부재 인과가 실제 인과에 해당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한편 ACS와 CRS는 반사실적 인과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있다. 그러나 부재 인과를 인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인과 이론은 반사실적 인과 이론뿐이다. 사토리오는 반사실적 인과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사-인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런데 유사-인과는 실제 인과가 아니라, 반사실적 인과적 설명이다. 따라서 ACS와 CRS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과적 연쇄가 아니라 인과적 설명을 통한 실제 인과적 연쇄의 요소들이 자유를 근거한다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요소들은 부재 인과처럼 보이는 유사-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설명들을 말한다.

하지만 반사실적으로 설명되는 ACS와 CRS는 더 이상 프랑크푸르트 사례에서 프랭크가 자유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프랑크푸르트 사례는 반사실적인 상황을 자유의 근거로 도입하는 순간 프랭크가 자유롭지 않다는 귀결을 낳게 한다. 프랭크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반사실적인 상황에서도 타의에 의해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CS와 CRS는 자유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다.

[39] Sartorio,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94쪽.

# 참고 문헌


1. 김동현 · 박일호 · 여영서 · 이영의 · 전영삼 · 최원배, (2020), 『인과』, 서광사.
2. 선우환, (2020), 『때문에』, 아카넷.
3. 김성수, (2013), 「부재 인과의 무분별한 증식의 문제와 해법들」, 『철학적 분석』 27: 59−80.
4. 이상희, (2018), 「도덕적 책임에 관한 프랑크퍼트의 이해」, 『윤리연구』 123: 111−134.
5. 최성호 · 김효은, (2009), 「새먼의 과정 인과 이론」, 『철학적 분석』 20: 141−168.
6. Clarke, R. (2014), *Omis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 Collins, J. and Hall, N. and Paul, L. A. (eds.), (2004), *Causation and Counterfactuals*, MIT Press. Cambridge, Mass: MIT Press.
8. Fischer, J. M. and Ravizza, M. (1998), *Responsibility and Contr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Sartorio, C. (2016), *Causation and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 Van Inwagen, (1983), *An Essay on Free Wi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 Anić, Z · Pećnjak, D, (2020), 'Free will, Causation, and Sartorio' s Causation and Free Will'; *Prolegomena* 19 (1): 77−90.
12. Clarke, R. (2018), 'Free will, Causation, and Absence', *Philosophical Studies* 175: 1517−1524.
13. Dowe, P. (2001), 'A Counterfactual Theory of Prevention and 'Causation' by Omis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2): 216−226.
14. _____, (2004), 'Causes are Physically Connected to their Effects: Why Preventers and Omissions are not Causes.' in Hitchcock, C. (ed.), *Comtemporary Debates in Philosophy of Science*, ch 9, Blackwell.

15. Fischer, J. M. (2006), 'Responsiveness and Moral Responsibility', in his *My Ways: Essays on Mor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6. Frankfurt, H. (1969), 'Alternate Possibilities and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66: 829–39.
17. Frankfurt, H.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1): 5–20.
18. Ginet, C. (2006), 'Working with Fischer and Ravizza's Account of Moral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Ethics* 10(3): 229–253.
19. _____, (1990), 'On Action', *Mind* 100(3): 390–394.
20. Lewis, D. (2000), 'Causation as Influence', *Journal of Philosophy* 97: 182–197.
21. _____, (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3: 556–567.
22. McGrath, S. (2005), 'Causation by Omission: A Dilemma', *Philosophical Studies* 123: 125–148.
23. McKenna, M. (2016), 'Reasons–Responsive Theories of Freedom', in K. Timpe, M. Griffth, N. Levy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Free Will*, Routledge.
24. _____, (2013), 'Reasons–Responsiveness, Agents, and Mechanisms', in D. Shoemaker (ed.), *Oxford Studies in Agency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5. _____, (1997), 'Alternative Possibilities and the Failure of the Counterexample Strateg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28 (3): 71–85
26. Mumford, S. and Anjum, R, (2010), 'A powerful theory of causation', *The Metaphysics of Powers*, Routledge: 143–159.
27. Naylor, M. (1984), 'Frankfurt on the Principle of Alternate Possibilities,', *Philosophical Studies* 46: 249–358.

28. Pereboom, D, (2018), 'On Carolina Sartorio's "Causation and Free Will"', *Philosophical Studies* 175: 1535-1543.
29. Sartorio, C. (2013), 'Making a Difference in a Deterministic World', *Philosophical review* 122(2): 189-214.
30. _____, (2009), 'Omission and Causalism', *Nous* 43(3): 513-530.
31. _____, (2005), 'Causes as Difference-Makers', *Philosophical Studies* 123(1-2): 71-96.
32. Strawson, P. (1962), 'Freedom and Resentment',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48: 817-211.
33. Vihvelin. K. (2004), 'Free Will Demystified: A Dispositional Account', *Philosophical Topics* 32(1/2): 427-450.

## Abstract

# Causal Reasons-Sensitivity and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Kim, Mohyeon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rankfurt-type example (Frankfurt(1969)) shows that the agent can act freely even if it is impossible for the agent to choose to do otherwise. If so, free will is grounded in the actual action, not in the alternative choices available. Advocates of the reasons-responsiveness theory claim that the resource of free action is the way in which the agent acts responsively to reason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reasons-responsiveness theory to the Frankfurt-type example is objectionable. It cannot explain the case of an agent who would not act for reasons in counterfactual scenario is free in the actual situation.

According to the actual-causal sequence theory(ACS; Sartorio(2016)), the source of a free action is in the causal sequence leading to the action. If this strategy is successful, then causal determinism and free will are compatible. The causal reasons-sensitivity theory(CRS), which Sartorio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previous reasons-responsiveness theory, insists that 'the absence of reasons not to do an action *a*' is as important as the reasons to do *a*. According to CRS, an action is free even if

the agent has no alternative choice.

Sartorio sets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as an important foundation of her theory. By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we are referring to the cases where absences of events are relata of causation. However, Sartorio's theory does not explain how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is possible.

In my opinion,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needs to be explained by counterfactual explanation. This is because one needs to accept either counterfactual causation or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as species of quasi-causation in order to explain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Quasi-causation means, if causation happens in counterfactual situation but not in actual situation, absence seems to work as a cause or an effect. (Dowe(2001))

In this article, I insist that Sartorio's theory must accept the counterfactual explanation for causation. Sartorio suggests difference-making causation, and she opens up to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as a species of quasi-causation. However, both strategies require counterfactual explanation for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Finally, I demonstrate that once we accept a counterfactual account of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Sartorio's theory fails to show that Frankfurt-type actions are free. Hence, Sartorio's theory which rests on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fails to establish the compatibilism between free will and causal determinism.

Keywords : Free will, Determinism, Compatibilism, Causal Reasons-Sensitivity, Causation involving Omission, Counterfactual explanation.

Student Number : 2020-28895